

청소년 비행의식의 형성 배경

박 태 수*

목 차

- I. 문제 제기
- II. 청소년 비행의식에 대한 논의
- III. 청소년 비행 실태 및 의식 형성 조사
- IV. 건강한 의식 형성을 위한 제언
- * 참고문헌

I. 문제 제기

여고 1년생 K양의 가출 과정을 예로 제시하면서 본 주제를 전개하고자 한다.

K양(당시 17세)은 A여상 2학년 재학중 집을 나와 가출촌에서 친구와 함께 거주하면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K양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착실한 모범생이었으나 부부 싸움을 자주하던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새아버지를 맞이하게 된다. 이 때부터 K양은 새아버지가 마음에들지 않아 차츰 집에 있기가 싫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담배도 피우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지만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술과 본드도 마시고,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과 놀다가 함께 자기도 하는 등 집에 들어오지 않는 회수가 늘어난다. 방학 때는 한달간이나 친구집에서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지만 부모가 포기하고 냉대한다. 부모의 무관심과 냉대로 견디기 어려운 K양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집을 나간다. 그러던 중 술집마담의 소개로 룸살롱에 취직하게 되고 월수입 150만원 정도의 돈을 벌면서 마음껏 즐기며 지낸다. 어느 날 심야영업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경찰이 연락해 집으로 되돌아 오게 되고 다시 학교에 복교하게 된다. 그러나 학급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선생님의 자신을 멀리하는 듯한 태도에 견디기가 어려워 또다시 가출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K양이 가출하기까지에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가출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부모의 잦은 싸움은 K양을 불안하게 하였고, 이혼으로 이어지면서 가정이 더 이상 안정된 곳이 아님을 느껴 K양으로 하여금 안정된 곳을 찾아나서게 한다. 가출이란 불

* 사범대학 교직과 부교수

안한 가정을 떠나 안정된 곳으로 찾아나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K양이 외롭고 힘들어서 부모가 보고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는 이를 외면한다. 돌아온 마음을 감싸주고 푸근하게 해 주었다더라면 가정이 안정된 곳임을 느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은 사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곳으로 느껴져 다시 가출한다. 세 번째로 K양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동료 학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교사의 냉대가 학교도 더 이상 자신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느끼게 한다. 끝으로 K양이 머물렀던 사회가 비록 어두운 곳이기도 하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감싸주고 따뜻이 대해 주기 때문에 K양에게는 가장 안정된 곳이라는 느낌을 준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곳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곳이 K양에게는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린 셈이 되었다.

오늘날 비행이란 정신과적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성인이 저지른 경우는 범죄가 되지만 청소년이 범한 경우는 이를 비행이라고 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비행을 보면 무단결석, 가출, 폭력, 절도, 약물남용, 성비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비행청소년 중 극히 일부는 범법자가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비행이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행의 원인은 성격 등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부모 또는 교사,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보여주는 갖가지 모습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비행의식을 심어 주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청소년비행의 원인이라고 논의되어 온 바를 검토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성인들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청소년 비행의식에 대한 논의

1. 비행을 바라보는 시각들

비행이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을 무시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무절제한 폭력사용, 도박, 약물남용, 무단가출, 등교거부, 무분별한 이성교제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의 소년법은 비행청소년을 형벌법령 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거나 또는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1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성수(1994)도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여러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정의는 모두 법에 의해 비행 행동이 처벌받았

거나 범법이전의 사소한 위반까지도 비행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비행을 보는 시각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개는 공격성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첫번째 관점은 공격성의 원인을 내적인 욕구나 기질로 설명하는 즉, 본능적 행동으로 보는 경우이다. 두번째 관점은 공격성을 외적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충동적 행위로 간주, 욕구좌절과 공격성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세번째 관점은 공격성이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학습이론과 관련된 관점이다. 이 관점은 어린이가 TV의 폭력물을 자주 보면 공격성이 증가된다는 현상으로 잘 설명된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비행의 평가 및 치료를 위해 편의상 비행을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비(非)사회적 공격적 비행이다. 이 유형의 비행은 다른 사람과 애정이나 유대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는 청소년이 저지른다. 한 마디로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 권리를 무시하는 형이다. 이들은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 유형은 특정한 애착대상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청소년에게서 잘 발견된다. 예컨대 여러 사람에 의해 양육되었거나, 적절한 통제와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성장한 경우다.

둘째는 사회화 결핍비행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은 계획적으로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 자기통제력이 없고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 이를테면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유형이다. 어린 시절 양육과정에서의 부모의 과잉보호 또는 일관성 없는 통제훈련을 받으면 이 유형의 청소년으로 자라게 된다.

셋째는 사회화성 비행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애착을 보이나 대상이 한정돼 있다. 또 자신이 속한 집단(범죄집단)에는 의리나 충성을 보이지만 단 사람의 권리나 이익은 아랑곳 하지 않고 행동한다. 이 부류의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비행이 잦은 계층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넷째는 2차적 비행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 유형이 성장과정중에 이미 어느 정도 성격화되고 고착된 형태인데 비해 이 유형은 내적 갈등으로 인해 생긴 우울증이나 신경증 등 정서적 갈등 때문에 저지르는 2차적인 비행이다. 별 문제 없이 성장하던 청소년이 갑자기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돈을 훔치는 비행, 그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는 저변에 깔린 부모와의 갈등이나 우울등 다른 정신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은 일반범죄를 설명하는 이론과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의 이론은 상대적으로 비행에 더 초점을 둔 경우도 있으나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 모두가 비행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비행의 동기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대체로 보아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접촉차이이론, 사회결속이론, 낙인이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중 접촉차이이론을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Sutherland에 의하여 제시된 접촉차이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사회에는 일탈적인 행동양식과 정상적인

행동양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쪽과 많은 접촉을 가지느냐에 따라 일탈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정의를 내리는가가 결정된다. 일탈행동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타인들과 친밀한 접촉을 통하여 학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어떤 내용을 배우는가가 중요시 된다. 접촉차이이론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비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비행친구에 대한 의식과 부모 또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비행의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사연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청소년 비행의식을 조장하는 가출, 학업성적, 부모의 모습, 자아정체성, 비행트랙 현상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청소년들의 비행의식을 조장하는 요인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식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독립된 삶의 추구과 가출,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비행, 공격적인 부모와 공격적인 자녀, 비행트랙 현상, 자아정체성 확립과정과 비행 등을 들고, 이러한 요인들이 비행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독립된 삶의 추구와 가출

학생들의 가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여학생의 가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가출한 중·고교생은 8,125명이고 그 중 여학생은 4,496명으로 남학생의 3,629명보다 무려 1.5배 가까이 많다. 지금까지 가출은 부모의 이혼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대부분 보통가정의 학생들이 친구관계나 충동적으로 나간다고 보고 있다.

가출에는 스스로 나가는 경우와 부모가 학대하고 미워하거나 방치하여 떠밀어내는 두가지 양상이 있다. 이를 테면, 정신적·신체적 학대로 가정보다 밖에서 더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 집안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 이혼이나 경제적 타격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단호하게 다루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은 겉으로는 빠기고 반항하지만 속으로는 안정감이 없고 겁을 낸다. 공부나 대인관계에 익숙하지 못하고 어른 앞에서 불안해한다. 자기 같은 또래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수동적·의존적이며, 주위 어른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Homer(1973)도 가출을 두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가정문제로부터 달아난 탈출형가출(running from)과 성이나 약물, 술 등과 같이 놀이나 즐거움을 주는 추구형 가출(running to)로 나누고 있다. 대체로 가출은 참을 수 없는 가족상황이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문제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것인가, 계속 의존할 것인가도 청소년의 대단한 고민이나, 이 고민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 가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부모는 늘 하던대로 아이취급을 하려들지만

청소년 자신은 이제 컸으니 좀 더 많은 자유를 달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뜸 화를 내고, 자기 혼자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부모님은 왜 이리 내게 무관심한가”, “부모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 나”며 투정을 부린다. 즉 독립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아기적 의존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과도기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부모에 향하던 존경심은 외부로 쏠려 친구나 인기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자기 나름대로 우상화한다. 부모에게 받는 인정보다 친구들과로부터의 인기에도 관심을 쏟는다. 극단적인 경우, 가정은 가족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식사와 잠만 해결하는 하숙집으로 전락되고 만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과제는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독립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개별화(individuality)는 이상적인 상으로 내면화된 부모에 대한 심리적 의존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개별화와 관련하여 Sullivan(1980)은 남자대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대학생들이 실제로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집을 떠나 대학기숙사에 머무르는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보다 가족으로부터 더 높은 독립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만족도 한층 높았으며, 동시에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 보다 순조로웠다. 이는 청년기에 있어서 가족과의 분리가 오히려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만족이 청년의 건강한 심리발달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비행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 중 아마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성적에 관한 부담일 것이다. 공부 잘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등 성취에 대한 압력이 청소년기에 주위 사람들로 부터 가해진다. 특히 입시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입시란 해당 청소년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 재수생 문제, 성적이 부진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청소년 등 입시교육 위주의 병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생활경험과 풍부한 사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실제로 손승영(1995,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학술심포지움)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중퇴자들의 약 절반정도(48.55)는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서 중퇴했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중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퇴자 외에도 학교에는 잠재적 중퇴자, 즉 학교는 그만두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업의욕 상실자들이 많다. 그리고 중고생들의 학업중퇴의 원인이 과거의 가정문제에서 점차 학교 및 사회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호택과 이민규(1987)의 연구를 보면, 공부문제, 대인관계문제, 가

정문제, 학교생활문제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노혜숙(1986)은 중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근원은 성적문제, 친구문제, 외모문제, 휴식부족의 순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했는데,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다. 즉, 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 정도는 성,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지만, 공부나 성적등과 같은 학업 문제가 가장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에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Siegel과 Brown(1988)에 의하면, 청소년기 초기는 심리적 변화, 부모와의 갈등, 친구관계의 중요성 증가, 새로운 교육경험과 더 많아진 교육내용 등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증가되며, 중기나 후기에 비해 더 많이 침해를 받는 시기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우울, 자살, 자신감 감소, 열등감, 범죄행위, 성적 저하와 같은 많은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나는 증상은 크게 생리적 증상, 심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심리적 증상과 행동적 증상을 보기로 한다. 심리적 증상에는 인지적 정서적반응이 포함 된다. Cohen(1980)은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후유증(aftereffect)에는 인지적 기능의 감소, 좌절에 대한 참을성 감소, 공격적, 무력감, 타인에 대한 감수성 감소, 위축이 포함된다고 했으며, Schuler(1980)는 환상, 무관심, 체념, 불면증, 우유부단, 거부, 대처능력 저하, 불안정, 불안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행동적 증상으로는 식욕상실, 체중변화,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폭력, 언어장애, 불면증, 회피행동, 경련 등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자살, 자신감의 감소, 범죄행위, 성적저하, 적응상의 문제등을 일으키며, 특히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음주와 흡연, 폭력, 충동적 행동 등은 비행과 연결되기 쉽다.

3) 공격적인 부모와 공격적 자녀

Sears, Maccoby 및 Levin(1957)은 자녀양육과 공격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들이 보고한 자녀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결과와 상관시켰다. 이들 연구에서 양친이 아동과의 관계에서 매우 허용적일 때 아동의 공격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Bandura가 주장한 것처럼 그러한 양친들은 아동의 공격성을 강화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공격행동을 심하게 처벌하는 양친의 자녀 또한 공격적이 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아마도 그러한 처벌에서 오는 좌절과 분노가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을 것이고, 양친의 처벌은 또한 아동에게 따라갈 모델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공격적 양친에게서 공격적 자녀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Sears 등의 연구결과는 아동학대에서 그 실증을 얻을 수가 있다. 종종 아동학대는 양친의 한쪽 혹은 양쪽이 아동을 길들이다가 생긴다. 예컨대,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면 부모의 자제되지 않는 분노가 터져서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개골절에 이르기까지 학대가 자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식을

그냥 미워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동학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하찮은 비행들까지 그러한 성향이 있는 양친에게서는 학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학대당한 아동들이 성장하여 학대하는 양친이 되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행동양식을 가르침으로써 공격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나 10대가 똑같이 TV에서 본 폭력행위를 모방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세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 시간에 방영된 프로그램을 보고 아홉살짜리 자기 딸을 난폭하게 공격하게 됐다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주장하며 텔레비전 회사를 고발한 사례가 있다. 공격한 그 세 명의 어린이들은 TV 프로그램에서 본 공격방법을 그대로 흉내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성인 범죄자들 역시 TV에서 나온 지능적인 범죄수법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기술을 숙달시킨다(Hendrick, 1977).

4) 비행의 트랙 현상

청소년 비행특징과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비행의 '트랙(tracking)현상'이다. 즉 한번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자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비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비행의 트랙현상이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특징은 아니더라도, 청소년기가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의 트랙현상은 이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즉 비행청소년으로 낙인된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비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않지만, 지속적인 사회적반응으로 인해 스스로 비행자라는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이차적인 비행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Lement, 1967).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하지 못하면 이들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자아정체성 확립과정과 비행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는다. 때때로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취급하지 말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은 한 인간으로 대접받기를 바라며 부모들이 그들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때때로 부모에 반항한다. 부모 또는 선생님의 권위나 가치관에 도전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나 자신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기준에 반대하여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자신을 표출하게 되며, 이 때 부모와 자식간에는 어느 정도의 갈등 현상이 일어난다.

동료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자아정체감은 영향을 준다. 자아 정체성 확립의 모델이 어릴 때는 부모였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를 모델로 거부하며 동료집단에서 찾는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청소년들은 동료집단의 유대가 강하다. 이들은 부모나 교사 또는 종교의 영향보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태도의 형성에 강하게 작용한다. 동료집단은 내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시기에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들의 감정이나 경험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곤란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테면 초경의 경험 나누기

나, 이성에 대한 대처방식 나누기 등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대처하게 하는 역할의 한 예이다. Erickson은 청소년집단 중에 옷이나 제스처어를 같이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는 정체성 혼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 친구들과 똑같은 옷과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자아의 안정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념과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것은 자아 정체성 추구에 기초하고 있다. 낯은 이념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한편 새로운 이념을 신봉하고 거기에 행동하는 것은 자아 정체감을 강화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

Ⅲ. 청소년 비행 실태 및 의식 형성 조사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식의 형성 배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중학교 1,2학년 540명과 고등학교 1,2학년 540명 모두 1,08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회수된 것은 944명(중학생 485명, 고등학생 459명)이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을 지켜보는 성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1,080명과 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수된 질문지는 학부모 549명(중학생 학부모 278명, 고등학생 학부모 271명)과 교사 112명(중학교 58명, 고등학교 54명)이었다.

2. 조사내용 및 자료 처리

학생용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가정생활(12문항), 학교생활(12문항), 사회생활(11문항)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생활 영역 : 부모님의 생존 여부, 부모님의 직업, 가정의 생활형편, 가정의 분위기, 자녀의 의견존중,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 동거 여부, 부부간의 사랑 정도, 가정의 안락 정도, 가출 여부, 가출 이유, 가출후 행동

○ 학교생활 영역 : 학교생활의 즐거움, 수업시간의 주의집중,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 학교에 가기 싫은 까닭, 동료학생 폭행 경험, 폭행 까닭, 폭행 장소, 동료학생 절도 경험, 절도 까닭, 비행후 결과, 선생님으로부터의 매맞은 경험, 매맞은 까닭

○ 사회생활 영역 :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빼앗은 까닭, 집단 싸움 경험, 싸운 까닭, 유흥업소 출입경험, 출입 까닭, 출입시 업소주인의 반응, 음주 경험, 음주후 행동, 비행뒤 처벌 유무, 처벌후 마음 상태

이와 같은 질문지 내용의 통계는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학교급별(중, 고), 학년별(1,2), 계열별(인문계, 자연계), 남녀별로 나누어 반응빈도를 산출하였으며, 가출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의식과 관련지어 가출의 배경을 탐색하였다.

학부모용 질문지의 내용은 ①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② 비행에 영향을 끼칠 부모의 생활모습, ③ 자녀의 비행에 끼칠 사회적 환경요소 등이며, 교사용 질문지의 내용은 ① 학업성적과 학생의 비행관계, ② 동료학생들의 행동과 학생 비행, ③ 교사의 행동과 학생 비행, ④ 기타 학교의 환경과 학생의 비행 등이다.

우선 학부모용 질문지의 통계처리는 질문지의 문항별로 제시된 반응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질문의 범위를 넘어선 응답이 많아서 반응된 내용들을 재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① 부모 자신이 보여주는 그릇된 모습, ② 사회구조와 주변환경, ③ 대중매체의 영향, ④ 부모와 자녀관계, ⑤ 학교환경과 자녀, ⑥ 자녀자신의 모습, ⑦ 기타로 분류하고 이를 반응빈도에 따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교사용 질문지의 경우도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응답이 많고 중복된 반응이 많아 실제로 반응 빈도는 조사대상자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각 문항별로 세부항목을 정하고 이에 반응한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 조사 결과 분석

가. 학생의 비행실태 및 의식 분석

학생의 비행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1) 중·고등학생의 비행실태 및 의식, (2) 인문계·실업계 학생의 비행의식, (3) 가출과 비행의식과의 관계로 나누고, 이를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중·고등학생의 비행실태 및 의식

1) 가정 생활

가정생활의 형편을 보면 중·고등학생 모두 자신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풍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4%이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4%에 불과하다. 가정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중학생의 경우 61.4%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52.6%이며, 불화가 있다는 반응에는 중학생 6.2%이나 고등학생은 12.0%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 존중에서는 중·고등학생 모두 41.0% 정도가 부모님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무시한다에서는 중학생이 11.7%인 반면, 고등학생은 17.6%의 반응을 나타내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부모들로부터 덜 존중받는다든 생각을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서는 따뜻하다는 반응에 중학생은 74.4%의 반응을 보였으나 고등학생은 59.6%의 반응을 보였고, 차가운 편이다에서는 반대로 중학생이 2.3%,

고등학생은 6.1%의 반응을 나타내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부모들에게 더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거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고등학생의 83.5%는 부모가 함께 사시지만 별거중이거나 이혼, 또는 부모중 어느 한 분의 가출 등이 8.0%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정도에 대해서 중학생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한다 라는 반응에 64.9%이나 고등학생은 51.7%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워한다에서는 중학생이 3.3%의 반응을 보였으나 고등학생은 5.2%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부부간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밖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분에 대해서 편안하다는 반응에 중학생은 65.3%, 고등학생은 53.3%의 반응을 보였고, 불편하다에는 중학생이 6.8%, 고등학생이 13.7%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가출에 대한 경험을 보면, 중학생은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에 39.0%이나, 고등학생은 58.3%이고, 실제로 가출을 한 경험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4.7%인 반면, 고등학생은 13.8%을 보여서 상급 학교로 갈수록 가출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출한 학생들의 가출이유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서 17.4%, 형제자매간의 충돌 17.4%, 부모님이 때리니까 8.7%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부모님의 무관심, 부모님과의 의견충돌, 부모님의 싸움등이 제시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님과의 의견충돌이 17.5%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부모님의 잔소리 11.7%, 부모님이 때리니까 11.1%의 반응을 보였고, 부모님의 무관심, 형제자매간의 충돌, 부모님의 기대 부담 등이 제시되었다. 가출후 행동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19.2%, 독서실에 간다 17.3%, 길거리를 방황한다 13.5%, 노래방이나 당구장 같은 곳에 간다 9.6%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길거리를 방황한다 23.2%,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21.2%, 일 자리를 구한다 16.1%, 노래방이나 당구장 같은 곳에 간다 12.1%, 독서실에 간다 7.1%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학교 생활

학교생활의 재미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 재미있다가 54.0%인 반면, 따분하다에 10.1%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재미있다에 36.2%, 따분하다에 20.1%의 반응을 보여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이 재미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업시간 주의집중에서도 중학생의 경우 집중을 잘한다는 반응에 28.4%, 집중하지 않는다에 13.8%를 보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집중을 잘한다에 15.7%, 집중하지 않는다에 32.3%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교생활의 재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학생이 60.6%이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55.8%로 나타났다. 학교 가기 싫은 이유로는 중학생의 경우, 공부가 싫어서 39.2%, 친구들로 따돌림을 받으니까 10.6%, 학교가 마음에 안들어서 9.5%, 친구로부터 폭행당하고 나서 7.1%,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처벌을 받고 나서 5.6%의 순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공부가 싫어서 32.1%, 학교가 마음에 안들어서 17.9%,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처벌을 받고 나서 6.4%, 선생님이 미워서 4.8%, 친구로부터 폭행당하고 나서 4.5%로 나타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공부가 싫거나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교사와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료학생을 폭행한 경험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9.7%, 고등학생이 16.2%로 나타났고, 폭행한 까닭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 친구가 잘난척 하니까 31.9%, 남들이 때리니까 덩달아서 12.8%, 스트레스를 풀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12.8%,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가 잘난척 하니까 32.4%, 스트레스를 풀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14.9%,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9.5%, 남들이 때리니까 덩달아서 5.4%의 순으로 나타나 잘못된 친구관계가 비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료학생을 폭행한 장소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 교실이 68.1%로 가장 많았고, 학교주변 8.5%, 복도 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실 56.8%, 화장실과 학교주변이 각각 16.2%로 나타나 교실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료학생들의 물건을 훔친 경험에 대해 중학생은 훔친 경험이 있다에 7.0%이고 고등학생은 11.8%로 나타났다. 물건을 훔친 까닭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순간적으로 가지고 싶어서 61.8%, 그 친구가 미워서 20.6%, 물건을 살 돈이 없어서 5.9%, 다른 학생이 시켜서 2.9%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가지고 싶어서 57.4%, 그 친구가 미워서 7.4%, 물건을 살 돈이 없어서 5.6%로 나타나 학생들의 절도 행위가 충동적임을 알 수 있다. 물건을 훔친 결과에 대해 중학생은 아무일 없었다에 64.7%, 선생님에게 처벌받았다 8.8%, 부모님이 학교에 오거나 근신받고 노력봉사했다에 각각 2.9%의 반응을 보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아무일 없었다에 75.9%, 선생님에게 처벌받았다에 5.6%, 근신받고 노력봉사했다에 1.9%의 반응을 나타내어 비행을 저지르고도 무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선생님에게 매를 맞은 경험에 대해, 중학생은 25.4%이고, 고등학생은 55.2%이며, 매를 맞은 까닭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수업태도가 나빠서 37.4%, 규칙을 어겨 26.0%, 성적이 떨어져서 12.2%, 선생님의 화풀이로 8.9%의 반응을 보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규칙을 어겨 33.6%, 성적이 떨어져 20.6%, 선생님의 화풀이로 19.8%, 수업태도가 나빠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사회 생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옷, 신발을 뺏은 경험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 1번 이상 경험이 4.3%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5.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물건을 뺏게된 까닭은 중학생의 경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14.3%, 어른들에 대한 반항심으로 14.3%, 그냥 재미로 9.5%, 친구가 시켜서 4.8%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그냥 재미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에 각각 37.0%이고, 친구가 시켜서 11.1%, 어른들에 대한 반항심이 3.7%로 나타났다.

집단싸움에 대해 중학생은 경험이 있다에 7.2%이나 고등학생은 12.7%로 나타났으며, 집단싸움을 하게 된 까닭은 중학생의 경우, 친구가 건방지게 구니까 54.3%, 집단에 대한 의리와

상대편 기죽이기가 각각 11.4%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친구가 건방지게 구니까에 43.1%, 집단에 대한 의리 25.9%, 상대방 기죽이기 6.9%, TV나 비디오 흉내내기 3.4%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사회에서의 폭력이 모두 친구가 잘난 척하거나 건방지게 구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입금지구역인 유흥업소에 출입한 경험에 대해 자주 또는 몇 번있다에 중학생은 9.3%, 고등학생은 33.2%의 반응을 보였고, 유흥업소에 가게 된 까닭은 중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13.3%, 친구들의 권유로 5.8%,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5.0%, 호기심으로 4.2%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28.9%, 친구들의 권유로 17.3%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16.8%, 호기심으로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주인의 반응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 그냥 들여보낸다 27.5%, 대부분 거절한다 6.7%, 신분증 확인하지만 들여보낸다 0.8%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그냥 들여보낸다 52.8%,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들여보낸다 9.1%, 대부분 거절한다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술마신 경험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 한두번 이상이 26.0%이나 고등학생은 67.3%로 나타났다. 술마시게 된 까닭은 중학생의 경우 특별한 날 기념이 18.4%, 호기심 18.4%, 스트레스 풀기 위하여 8.7%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특별한 날 기념이 49.4%, 스트레스 풀기 위하여 18.4%, 호기심 14.5%로 나타났다. 술마시고 나서의 행동에 대해 중학생의 경우 집에 갔다 26.6%,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4.8%, 친구집에 갔다 1.4%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집에 갔다 54.8%,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15.7%, 이성친구와 같이 지냈다 2.1%, 집단시비를 걸었다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후 처벌 유무에서 중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23.7%, 고등학생은 36.0%였다. 그리고 이들이 처벌을 받고 나서의 느낌은 중학생의 경우 반성했다에 68.2%, 억울하다에 9.1%, 문제아로 취급받는다에 9.1%다시 보복하고 싶다에 4.5%인 반면, 고등학생은 반성했다에 58.8%, 문제아로 취급받는다에 15.7%, 억울하다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인문계·실업계 학생의 비행의식

가정, 학교, 사회 영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행 실태 및 의식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생활

가정생활 형편에 대해 풍족한 편이라는 반응에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은 30.4%, 2학년은 21.4%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은 16.6%, 2학년 15.5%로 나타났고, 곤란한 편이라는 반응에는 인문계는 10.4%, 실업계가 9.3%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을 남녀별로 보면, 풍족한 편이라는 반응에 인문계는 남학생이 26.1%, 여학생이 19.1%로, 실업계는 남학생이 13.2%, 여학생이 19.1%로 나타났다. 곤란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인문계는 남학생이 8.7%, 여학생이 11%, 실업계 남학생은 12.3%, 여학생은 4.5%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대체로 인문계 학

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알 수 있다.

가정분위기에 대해서는 인문계, 실업계의 남·녀 학생의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를 보면, 존중해 주시는 편이라는 반응에 인문계 남학생은 42.4%, 여학생은 43.3%이고, 실업계 남학생이 33.9%, 여학생이 41.8%이며, 무시하는 편이라는 반응에 인문계 남학생은 17.3%, 여학생은 18.1%이고, 실업계 남학생은 19.8%, 여학생은 15.7%를 보여, 인문계·실업계 학생간에 별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동거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사신다에 인문계 남학생은 92.4%, 여학생은 81.9%, 실업계 남학생은 74.5%, 여학생은 85.1%의 반응을 나타내어 부모님이 함께 생존하고 있는 정도에서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출 경험에 대해 가출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에는 인문계 남학생은 56.5%, 여학생은 66.9%이고, 실업계 남학생이 42.5%, 여학생이 63.4%인 반면, 실제로 가출을 한적이 있다라는 반응에는 인문계 남학생은 12.0%, 여학생은 7.1%이고, 실업계 남학생이 21.7%, 여학생이 14.9%로 나타나 가출을 생각해 본 경험은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가출을 한 경험은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더 높다. 가출한 이유를 보면, 인문계 남학생은 부모님과의 의견충돌과 부모님이 때리니까가 각각 27.3%, 부모님의 잔소리와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형제자매간의 의견충돌이 각각 9.1%이고, 여학생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서, 형제자매간의 의견충돌이 각각 22.2%, 부모님이 자주 싸우거나 부모님과의 의견충돌, 부모님의 기대부담이 각각 11.1%이고, 실업계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의견충돌 26.1%, 부모님의 무관심 8.7%, 그밖에 부모님이 자주 싸우거나, 때리거나, 기대가 부담되거나 각각 4.3%의 반응을 보였고, 여학생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서 20.0%, 부모님이 때리니까 15.0%, 무관심, 별거, 부모님과의 의견충돌이 각각 5.0%이다.

2) 학교 생활

학교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재미있다는 반응에 인문계 남학생은 37.0%, 여학생은 40.9%이고, 실업계 남학생은 30.2%, 여학생은 35.9%로 나타났으며, 따분하다는 반응에는 인문계 남학생은 16.3%, 여학생은 20.5%, 실업계 남학생이 23.6%, 여학생이 19.4%로 나타나 실업계 학생이 학교생활에 더 따분함을 알 수 있다. 수업시간의 주의집중에 대해서도 집중을 잘하는 편이라는 반응에 인문계 남학생은 25.0%, 여학생은 20.4%를 보인 반면, 실업계 남학생은 4.7%, 여학생은 14.1%이고, 주의집중을 하지 않는편이라는 반응에는 인문계 남학생이 31.5%, 여학생이 26.0%이고, 실업계 남학생은 42.4%, 여학생은 30.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이 떨어지며, 특히 실업계 학생의 주의집중이 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에 대해서는 인문계와 실업계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인문계 남학생의 경우, 공부가 하기 싫어서 29.3%, 친구들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에 각각 6.5%,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처벌을 받고 나서 3.3%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학교가 마음에 안들어서 15.7%, 공부가 싫어서

13.4%,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선생님께서로부터 심한 처벌을 받고 나서에 각각 3.1%로 나타났다. 실업계 남학생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31.1%, 학교가 마음에 안들어서 15.1%,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처벌을 받고 나서 5.7%, 친구들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4.7%의 순이며, 여학생은 공부가 싫어서 17.2%, 학교가 마음에 안들어서 10.4%, 선생님이 미워서 7.5%의 순으로 나타나 공부가 학교생활에서 비행의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동료학생들을 폭행한 경험을 보면, 경험이 있다에 인문계 남학생 25%, 여학생 3.1%이고, 실업계 남학생 30.2%, 여학생 11.2%로 나타났다. 폭행을 한 이유로는 인문계 남학생의 경우 친구가 잘난척 하니가 30.4%,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17.4%,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13.0%의 순이고, 여학생은 친구가 잘난척 하니가 50.0%이고, 실업계 남학생의 경우 친구가 잘난척 하니가 40.6%, 남들이 때리니까 덩달아서 9.4%, 친구에게 복수를 하거나 질투심 때문인가 각각 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33.3%,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20.0%, 친구가 잘난척 하니가 13.3%로 나타나 학교 폭력이 잘못된 친구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폭행을 한 장소로는 남녀 공통으로 교실, 화장실, 학교주변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료학생들의 물건을 훔친 경험은 인문계 남학생 19.6%, 여학생 1.6%, 실업계 남학생 18.9%, 여학생 10.4%의 순이다. 물건을 훔친 까닭은 인문계 남학생의 경우 순간적으로 가지고 싶어서 44.8%, 그 친구가 미워서 5.6%이고, 여학생은 순간적으로 미워서 100.0%이다. 실업계 남학생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미워서 65.0%, 물건을 살 돈이 없어서 15.0%, 훔치는 것이 즐거워서 10.0%, 그 친구가 미워서 5.0%이고, 여학생은 순간적으로 가지고 싶어서 57.1%, 그 친구가 미워서 14.3%의 순이다. 폭행을 하거나 훔친 뒤 결과에 대해 인문계 남학생은 아무일 없었다에 88.9%, 선생님에게 처벌을 받았다 5.6% 반응을 보였고, 여학생 아무일 없었다에 50.0% 반응을 보였다. 실업계 남학생은 아무일 없었다 60.0%, 선생님에게 처벌받았다 10.0%, 근신을 받고 노력봉사했다 5.0%이고, 여학생은 아무일 없었다 85.7%의 반응을 보여서 비행 뒤에 처벌받지 않음이 비행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재범을 할 가능성을 낮혀 줄 것으로 보인다.

3) 사회 생활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에 대해 인문계 남학생은 4.4%, 여학생은 0.8%이고, 실업계 남학생은 15.1%, 여학생은 4.4%로 나타나 실업계 학생의 비행이 인문계 학생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유로는 인문계 남학생의 경우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50.0%, 친구들이 시키거나 그냥 재미로 각각 25.0%, TV나 비디오를 훔내내기 위해 1.9%이고, 여학생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100.0%로 나타났다. 실업계 남학생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와 그냥 재미로 각각 37.5%, 유희비 마련, 어른들에 반항심 각각 6.3%이고, 여학생은 그냥 재미로 50.0%, 친구들이 시키거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16.7%로 나타났다. 집단으로 싸운 경험이 있다에 대해 인문계 남학생은 6.5%, 여학생은 12.6%이고, 실업계 남학생은 9.4%, 여학생은 19.4%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집단싸움의 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까닭을 보면, 인문계 남학생은 집단끼리

를 지키기 위하여 66.7%, 친구가 건방지게 구니까 33.3%이고, 여학생은 집단외리를 지키기 위하여 31.3%, 친구가 건방지게 구니까 18.8%, 상대방을 기죽이기 위하여 12.5%이다. 실업계 남학생은 친구가 건방지게 구니까 60.0%, 집단외리를 지키기 위하여 30.0%, 상대방을 기죽이기 위하여 10.0%이고, 여학생은 친구가 건방지게 구니까 53.8%, 집단외리를 지키기 위하여 11.5%,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7.7%, 상대방을 기죽이기 위하여 3.8%로 나타나 남학생은 집단외리와, 여학생은 친구가 건방지게 구는 일과 관련이 높다.

(3) 가출과 비행 의식과의 관계

가출은 비행의 또 하나의 시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이 비행의식 또는 비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 생활

가정생활 형편과 가출과의 관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7.5%,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8.8%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는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1%,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8.8%의 반응을 보였다. 2학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0.0%, 가출 한 적이 있다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3%,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8.6%의 반응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0.1%,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3.9%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는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0.0%,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2.2%의 반응을 보였고, 2학년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9.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5.9%이고,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는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9%, 가출을 한 적이 있다 7.4%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출에 대한 생각은 경제적 풍요와 곤란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가출을 실행에 옮길 경우는 경제적 곤란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분위기와 가출과의 관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5.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37.0%이고, 불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2.6%, 가출 한 적이 있다 29.6%의 반응을 보였다. 2학년의 경우는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66.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57.1%이고, 불화가 있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0%, 가출을 한 적이 있다에는 반응이 없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6.4%,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7.8%이고, 불화가 있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9.3%,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7.8%의 반응을 보였다. 2학년의 경우는 화목하다고 생각한 학생 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0.0%,

가출을 한 적이 있다 43.8%이고, 불화가 있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1.4%, 가출을 한 적이 있다 6.3%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가정이 화목하더라도 가출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출을 하게 될 경우, 가정불화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동거여부와 가출과의 관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86.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74.1%이고, 별거나 이혼, 안계실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0.3%,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5.9%이다. 2학년에서는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84.0%, 가출을 한 적이 있다 71.4%이고, 별거나 이혼, 안계실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3.4%, 가출을 한 적이 있다에는 반응이 없다. 중학교 1학년에서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85.0%, 가출을 한 적이 있다 75.0%이고, 별거나 이혼, 안계실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7.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5.0%이다. 중학교 2학년에서 부모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81.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75.0%이고, 별거나 이혼, 안계실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5.0%,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5.1%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도 동거여부, 즉 양부모가 함께 있지않은 경우가 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 생활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가출과의 관계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생활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6.2%,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5.9%이고, 따분하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는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1.2%,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8.5%이다. 2학년의 경우, 재미있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 61.3%,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8.6%이고, 따분하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 8.0%, 가출을 한 적이 있다에는 반응이 없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재미있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 35.0%, 가출한 적이 있다 33.4%이고, 따분하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 20.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38.9%이다. 2학년의 경우 재미있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3.8%, 가출을 한 적이 있다 37.6%이고, 따분하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5.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33.8%로 나타나, 학교생활의 따분함도 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시간의 주의집중과 가출과의 관계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집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다 12.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1.1%이고, 집중을 하지않는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5.4%, 가출을 한 적이 있다 51.9%이다. 2학년의 경우 집중을 잘한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4.0%, 가출을 한적이 있다에는 반응이 없다. 집중이 잘 안된다고 생각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3.3%, 가출을 한 경험이 있다 42.9%이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집중을 잘한다고 생각한 학생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3.5%, 가출을 한 적이 있다 5.6%

이고, 집중이 잘 안된다고 생각한 학생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2.8%, 가출을 한 적이 있다 61.1%로 나타나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이 잘 안되는 것도 가출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료학생들을 폭행한 경험과 가출과의 관계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폭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8.1%, 가출을 한 적이 있다 37.0%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6.7%, 가출한 적이 있다 28.6%이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폭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0.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30.6%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5.8%,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8.8%로 나타나 폭행경험과 가출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료학생들의 물건을 훔친 경험과 가출과의 관계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훔친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1.0%,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2.2%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7%, 가출한 적이 있다 42.9%이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훔친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0.0%, 가출한 적이 있다 30.6%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9%, 가출을 한 적이 있다 50.0%로 나타나 절도와 가출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 생활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과 가출과의 관계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1번 이상의 경험을 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6%,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9.6%이고, 2학년의 경우는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8.0%,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8.6%이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1번 이상 경험을 한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3%,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6.7%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4%,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8.8%로 나타났다.

집단으로 싸운 경험과 가출과의 관계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집단으로 싸운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1.8%,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5.9%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5.3%,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4.3%이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집단으로 싸운 경험이 있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4.3%, 가출을 한 적이 있다 27.8%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0.5%, 가출을 한 적이 있다 50.0%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 간 경험과 가출과의 관계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4.4%, 가출을 한 적이 있다 59.2%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4.6%, 가출을 한 적이 있다에는 반응이 없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중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36.4%, 가출을 한 적이 있다 80.6%이고, 2학년의 경우,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3.1%,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2.6%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회생활에서도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로 폭력, 절도등의 경험은 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학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비행 의식 배경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비행의식이 형성되는 요인으로 크게 부모자신이 보여주는 그릇된 모습(26.9%), 사회구조와 주변환경(18.3%), 대중매체의 영향(17.6%), 부모와 자녀관계(16.1%), 학교 환경과 자녀(14.8%), 기타(0.6%)로 나누고 있다.

부모자신이 보여주는 그릇된 모습에서는 부부싸움, 부모 이혼, 별거 및 가출, 부모의 음주나 도박, 거친 언어 사용, 부모의 불륜, 부모의 음란비디오 시청, 잘못된 사고방식 등이며, 사회구조와 주변환경으로는 물질만능 시대, 청소년만의 공간 부족, 사회에 만연된 이기심, 물지각한 어른들의 모습, 사회적 무관심, 사회의 도덕성 결여, 사회폭력 등을 비행의식 형성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는 폭력 및 음란성 비디오나 TV, 잡지, 퇴폐적 유흥업소, 언론의 무분별한 방송을 들었으며,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부모의 무관심, 자녀에 대한 과보호, 대화부족, 자녀의 이해부족, 자녀학대, 공부강요, 자녀의견 무시, 부모생각 강요 등이며, 학교환경과 자녀에서는 나쁜 친구와 사귀, 입시위주의 교육, 학내폭력, 불건전한 이성교제, 교사의 차별대우, 학교주변 불량배, 인성 프로그램 부족 등이며, 자녀 자신 자신의 모습으로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들의 유혹,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욕구 불만, 삶의 목표 불확실, 의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영역을 관련지어 보면, 가정환경(43.0%), 사회환경(35.9%), 학교환경(14.8%), 자녀 자신(5.7%)로 나눌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그릇된 모습이나 잘못된 관계가 역할이 자녀의 비행의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배경임을 알 수 있다.

다. 교사가 바라보는 학생의 비행의식 배경

학업성적이 학생의 비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① 공부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46.3%, ② 학교나 가정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그 불만으로 24.4%, ③ 부모의 공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못미쳐서 불안하므로 17.0%로 나타났다.

동료학생들의 어떤 행동이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① 힘을 과시하는 행위나 폭행 19.5%, ② 친구의 따돌림으로 인한 소외감 14.8%, ③ 비행을 저지르는 불량씨클 14.8%, ④ 흡연이나 음주, 가출, 음란 만화 등 10.1%, ⑤ 자신의 열등의식이나 소심한 성격 9.5%이다.

교사의 어떤 행동이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①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에 대한 방관적 태도(무관심) 20.1%, ② 교사의 편애 18.6%, ③ 학생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교사위주의 판단이나 행동 16.7%, ④ 학생의 인격 무시 12.7%, ⑤ 감정상태에서의 학생비난이나 폭력 11.8%, ⑥ 학생을 성적에 따라 대우 7.8%, ⑦ 교사의 이기심 7.8%, ⑧ 학생에게 부정적인 말 사용 4.4%의 순이다.

학교의 어떤 환경이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①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제도 21.2%, ② 성적위주의 교육환경 20.0%, ③ 비행을 유발하는 학교의 주변환경 18.2%, ④ 인성교육의 미흡 14.1%, ⑤ 취미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학습의 장 부족 11.8%, ⑥ 비행예방을 위한 선도활동 부족 8.2%, ⑦ 교내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 미흡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①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정의 결손적 환경, ② 대중매체의 지나친 광고 및 무분별한 방송, ③ 부모의 애정 결핍, ④ 사회가 학생을 상업적으로 생각, ⑤ 물질 만능주의적 풍조, ⑥ 학생의 가치관 혼란 등을 제시했다.

IV. 건강한 의식 형성을 위한 제언

1. 자녀의 모델이 될 부모

가족, 특히 부모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들은 소외감을 가지기 쉽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결손 가정에서 자라 가족원의 애정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들이다. 부모 어느 한쪽이 없으면 외형적 결손가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은 이러한 의미의 결손가정이라기 보다 가족원간의 이해와 애정이 없는 내재적 결손가정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억압하고 지나친 강요와 기대로 청소년을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 세대 또는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의 상호이해를 위해 자주 대화시간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지나치게 허용적 태도도 문제이다. 잘못했을 때는 엄격하게 다스리고 그러면서도 공감적 태도를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2. 비행청소년이 머무르고 싶은 학교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생 각자에게 자신의 존재가치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욱 중요한 역할이다. 비행 청소년들은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되고 있음을 경험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 범절을 지키려면 우선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과 자긍심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타인존중이 아니며 이것은 곧 비굴성과 자기열등감의 다른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재적 자기 열등감은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다.

학업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을 마련하여 처벌보다는

보호를 중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잃어버린 가정과 학교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비행청소년 기숙사학교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일부 보도를 보면서 그들에게 비행청소년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비행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학교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이들에게 정상적인 학생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다.

3. 자아정체감 위기가 곧 자아정체감 형성

청소년들이 심한 혼란없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내적인 욕구와 갈등을 잘 견디고 대처하는 자아 강도(ego strength)에 의해 좌우된다. 즉, 그 이전의 성격 발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아의 기능이 성숙된 경우에는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과정을 큰 어려움없이 감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 혼란에 빠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적인 심리 장애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rikson이 지적했듯이 청소년기의 주된 심리사회적 과제는 안정된 자아정체감의 성취로 건전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려면 정체감 위기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이 성취되기 이전의 정체감 위기 단계는 자아정체감을 여러가지로 탐색하는 시기로, 이러한 탐색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안정된 정체감을 이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도리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4.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비행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의 물리적 결손이나 가족간의 갈등과 같은 내적 결손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의 안정된 삶의 터를 빼앗는다. 가출은 불안한 가정을 떠나 어딘가 안정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비슷한 처지의 친구와 어울리면서 안정을 찾는다. 동시에 이들은 일종의 패거리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패거리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패거리 문화가 청소년의 집단적 배회를 전제로 하여 집단심리에 기초한 쾌락과 모험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로부터 양육되거나, 지적인 성취에 대해 적절한 관심과 배려를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양육되며, 학업성적을 낮게 유지한다. 그 결과 이들은 규범적 가치를 존중하는 성인들(부모 혹은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되고, 결국 스스로부터도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5. 자녀에게 독립심을 길러주는 부모

가족과의 유대관계, 즉 신뢰가 두터우면 떨어져서 성장하는 기간이 더욱 개별화를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실망과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화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도피이며, 사회의 다른 집단에 의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들은 장기적 목적의식이 결핍되었거나, 미래를 계획하고 성취하려는 동기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개념이 대체로 부정적이다. 특히 이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수용능력이 현격하게 낮아, 앞날을 계획하고 성취하려는 의지가 낮다.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성도 확보해야 하는 역설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자녀의 독립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애정과 상호작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Sullivan이 지적했듯이 기숙사 생활과 같은 실질적인 분리의 상황이 독립적인 행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또한 가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가족들과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자아수용능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가정에만 매어두려 하지 말고,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화를 위한 준비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6. 비행의 트랙현상을 막아주는 처벌

비행 청소년들은 도덕성과 가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좌절감을 경험하고, 타인들과의 애정적 결속감이 부족하여 사회의 규범적 가치관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Freud에 따르면 항문기에 배변 훈련을 통해 아동은 양심을 기른다고 한다. 배변 불 시기와 장소를 적절히 가려 훈련을 함으로써 잘못된 점과 잘하는 점을 가릴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꾸중을 함으로써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잘하는 행동에는 칭찬을 해 주어 자아이상, 즉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양심과 자아이상이라는 양면을 적절히 학습시키지 않게 되면, 비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이 비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 비행을 되풀이 하는 비행트랙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연구에서 보듯이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 다시 비행을 가져올 가능성을 더해 주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범죄자라는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2차적인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남재봉(1991).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5집」,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성수(1995). 빛나간 청소년의 세계,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10」, 청소년대화의 광장
- 신민섭 · 오경자(199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혼란과 부적응 행동, 「대학생활연구 제11호」,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안귀덕(1995). 인성발달과 도덕교육, 「학생지도연구제16집」, 원광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 이태원(1991). 청소년비행의 원인,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3).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3」, 도서출판서원
- Cohen, S.(1980). "Agtereffects of stress on Human Performance and Social Behavior :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88, 1. 88~108
- Siegel, J. M & Brown, J. D.(1988). "A Prasperspective Study of Stress Circumstances I Illness Symptom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 715~721
- Sullivan, K. & Sullivan, A(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93~99.